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 “우리도 함께 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기원

■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그리며 달립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청 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새봄의 질주를 펼친다.

동호회 회원들은 올해에도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전국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번 대회에는 170명의 회원 가운데 100여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봄이 무르익고 있는 마라톤 코스를 질주하면서 전국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광주유치를 기원할 계획이다.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스포츠 제전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알릴 방침이다.

이들은 마라톤에 대한 열의만큼이나 실력도 수준급이다.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박용만(52·식품안전과 위해식품지도담당) 회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라톤 마니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창조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청 마라톤 동호회가 3·1절 마라톤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다. 35번의 풀코스 완주를 한 박 회장은 90여 번의 하프 마라톤 완주, 100km의 울트라 마라톤 완주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3·1절 마라톤을 앞두고 매주 한 번씩 회원들이 만나 광주천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주변 정화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며 “마라톤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다지는 것은 물론 광주를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동호회의 목표다.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

는 3·1 마라톤에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마라톤동호회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170명의 회원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마라톤 출전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 회원은 3~4차례씩 대회에 출전해 광주시청 마라톤동호회의 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 생활체육 이끄는 건강 지킴이

■ 광주시생활체육회

“바로 뛰는 광주시생활체육회, 광주 시민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광주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생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 1인1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발로 뛰며 건강과 운동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이다.

이들은 또 1주일(7일) 동안 3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지는 ‘스포츠헤리’ 홍보에도 나서 건강한 광주 만들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생활체육회 직원들은 대부분이 생활체육 전공자 및 자격증을 갖춘 체육인들로 이번 마라톤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창준 회장은 “매년 한 해 시작을 3·1절 마라톤과 함께하며 직원들의 화합과 단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평소 건강을 위해 매주 등산을 하고 평소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생활



광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생활체육회 직원들이 발로 뛰는 체육 서비스를 외치며 3·1절 마라톤대회에 도전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완주를 목표로 해서 뛰겠습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새로 취임한 김현성 사무처장은 태권도, 합기도, 요가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달인으로 생활체육회 내에서 이번 마라톤대회의 최고기록자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필오 부장과 총무팀 선형근 팀장, 서영

철 팀장도 대회 준비에 만반을 기하며 휴일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사업팀 노창완 주임은 매년 3·1절 마라톤대회를 새해 결심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하는 주현진 주임은 “생활체육회 막내로서 짧은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겠다”며 완주를 다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농촌경제 살리기 구심점 되겠다”

■ 농협 하나로마트 전남사업소

“농협 하나로마트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흔들리는 농촌경제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개점 40주년을 맞는 농협 하나로마트 전남사업소가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농협 하나로마트 전남사업소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500여개의 하나로마트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트 개점에 따른 컨설팅과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호남권 유일의 농협 혼수백화점을 운영, 농민 조합원은 물론 도시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혼수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호남권 물류센터 신규 구축, 컨설팅 역량 강화 및 ‘진열 표준화’ 조기 정착, 혼수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강철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계기로 마라톤동



올해로 개점 40주년을 맞는 농협 하나로마트 전남사업소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유통 리더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호회를 결성했다.

동호회 체조기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전 직원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다듬으면 한다”면서 “동호회 결성을,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유통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철 체력’의 전도사 임태근 소장은 “유통 종사자의 최대 자산은 건강이라는 신념으로 등산과 헬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며 “이번 대회는 전 직원이 첫 출전하는만큼 기록보다는 완주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07년 농협 농촌사랑 원정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대륙의 길리만자로를 등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가 마라톤 두번째 출전인 최동균 팀장은 “처음엔 체력의 한계 때문에 뛰는 게 두려웠지만 지난번 완주하고부터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체력 다지며 이웃과 끈끈한 정나눠요”

■ 광주수원마라톤클럽

광주 수원지구 풍영정전을 가로 지르며 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와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광주일보 제46회 3·1절 마라톤 대회에 처녀 출전하는 광주수원마라톤클럽(회장 최현석) 동호회원들이다.

수원마라톤클럽은 순수 아마추어 회원들이 모여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지키는 의도로 지난해 10월 창단한 신생 마라톤 클럽이다.

회원들은 매주 화·목·일요일 오후 풍영정전 일대를 달리며 체력을 다지고 이웃사촌으로서 끈끈한 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신생 마라톤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타 클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현석 회장(36)은 “북에서 남으로 수원지구 중심부를 따라 흐르는 영산강 지류인 풍영정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운동을 시작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다”며 “최근에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번개모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다듬으며 훈련량을 조



지난해 10월 창단한 광주수원마라톤클럽의 회원들이 3·1절 마라톤을 통해 신생팀의 지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훈련부장 장영오(39)씨는 풀코스와 울트라 완주를 통해 쌓은 실력으로 회원들 간에 고수로 통한다. 품성한 외모와는 다르게 회원들을 카리스마로 제압하며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그는 한의사로 클럽의 주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고창마라톤대회에서 회원 전원일 하프코스를 완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15kg을 감량한 총무팀장 소형준(40)씨의 각오는 남다른다.

소씨는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허리가 36인치에서 32인치까지 줄어들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한결 가벼워진 몸만큼 이번 대회에서 입상을 목표로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능대박! 사제간의 즐거운 레이스”

■ 광덕고 달림이

“희망찬 새 학기를 위해 달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3·1절 마라톤대회에서 ‘광달이(광덕고 달림이)’들의 희망찬 질주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2학년3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를 보내왔던 친구들이다.

이들의 도전의 중심에는 지난 한해 2학년 3반을 인솔해왔던 김재철(53) 선생님이 있다. 7년째 동료 선생님들과 달림이를 해오고 있는 김 선생님은 ‘건강한 신체에서 강한 집중력이 발휘된다’며 평소 제자들에게 운동과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해왔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달림이에 관심을 가져왔던 학생들이 직접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함께 마라톤에서 뛰게 됐지만 3·1절 마라톤 대회는 이들에게는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기도 하다. 3월2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고3’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학생들은 건강간 새 학기를 다짐하며 5km를 뛸 예정이지만 최광록 군은 담임 선생님과



개학을 앞둔 광덕고 학생들이 3·1절 마라톤 대회 질주를 통해 희망에 찬 새 학기를 맞이할 계획이다.

하프 코스에 도전장을 냈다. 자신과의 싸움인 마라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새 학기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김 선생님과 최 군과 하프코스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마라톤이 결코 혼자 하는 운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고3이 되는 제자에게 힘을 더해줄 계획이다.

1년을 함께 한 제자들과 출발선에 서게 된

김재철 선생님은 “달림이를 통해 단련된 광덕인들의 모습을 알고 싶었다. 전원 완주를 통해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 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새 학기를 맞이해 수능에서도 대학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래 비전위한 한가족 한마음 질주

■ 여수 삼해원

“꿈을 향해 달려겠습니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여수시 연동동 아동복지시설 삼해원(원장 윤명숙) 학생들이 다짐이다.

삼해원은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대학생까지 67명의 학생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희망의 터전이다. 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삼해원에 동지를 틀었지만 가슴속에 누구보다 큰 꿈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삼해원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목표 아래 장차 사회로 나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삼해원측은 ‘미션인퍼서블’, ‘항상평가’, ‘놀이마당’, ‘월차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 학생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고 있다.

3·1절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참가하고 있다. 비록 5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자신과



여수시 연동동에 위치한 삼해원 학생들이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가슴속 깊이 간직한 꿈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다.

인라인 롤러 전국대회 메달을 휩쓸며 삼해원 최고의 스포츠맨으로 불리는 정희망(13)군은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각오다.

정군은 “마라톤을 뛰면서 체력을 점검하고 오는 3월 인라인 롤러 대회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친구이자 어머니인 윤명숙(여·54)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달림이서 우리는 한가족, 한마음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나아가 아이들이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